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만 강조

기관 전문성·특수성·지역성 등 반영 안돼 '보이기식'

용역기관 일률적 지표로 진행 … 문답식 평가도 문제

해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관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공적기능, 미래 비전 등을 감안하지 못하면서 '보이기식' 평가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 위주의 지표, 자료 제출 요구 후 이어지는 문답식 현장 평가 등이 정작 해당기관의 경영 및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지난 5월 25일 재공고 입찰수의계약 방식으로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1억1960만원에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100여일 동안 전남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진행했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시로부터 8570만원을 받고 2개월여간 10개 기관의 경영평가를 추진했다. 시·도가 같은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맡긴 것이다.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은 없었고, 우수 등급인 '나' 등급 4곳, 보통인 '다'등급 7곳, '라'등급은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2곳 등이었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이들 의료원은 직원 허위입원 등 비리가 적발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경영평가가 용역기관이 정한 일률적인 지표에 의해 진행되면서 민간기업과 같은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평가지표는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과 활동, 경영성과 등으로 구분된다. 14개 기관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점수를 배분하고 있지만, 각각 20~23점, 30~32점, 45~49점 등으로 해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각 기관들의 지적이다. 또 100점 만점 가운데 고객만족도조사(10점), 재무관리 목표 부여(2점)를 제외하면 모두 정성(절대)평가여서 자의적 판단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지표에 의한 경영평가는 기관이 갖는 전문성이나 특수성, 지역성이 반영되기 어려운데다 기관의 성과를 획일적인 기준에 짜맞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출자기관 관계자는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업무가 전혀 다른 기관과의 점수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부처의 경영평가도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며, 이미 지적받은 전남도 감사결과 등에 의해 점수가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짧은 용역기간, 외지업체 선정 등으로 인해 용역업체가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나와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평가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해 정작 기관이 맡고 있는 공적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지표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인건비 축소, 경영혁신 방안 수립 등 '단골 지적'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표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준공식

19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박종호 센터장(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과 지병문 전남대총장 등 행사 참석자들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내일 담양서 개막

죽녹원·전남도립대 일원에서 3일간 펼쳐져

음식 직접 만들고 맛보고 즐기는 오감축제

제2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가을햇살, 좋은사람, 그리고 남도음식'을 주제로 21일부터 3일간 담양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남도음식을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광객이 직접 요리 과정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양방향적 콘텐츠로 준비됐다.

특히 남도음식명인의 명품 남도음식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남도별미방'이 새롭게 선보인다. 남도별미방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남도음식명인과 소통하며 남도별미 요리를 배우고 즉석에서 시식도 할 수 있게 꾸며진 개방형 주방이다. 재단 누리집 온라인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개에서 27개로 2배 이상 확대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각종 한식 디저트 체험, 사찰음식 체험, 약초밥·대통밥·가마솥밥 체험, 죽로차·막걸리 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올해부터 주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는 요리경연대회는 음식축제만의 또 다른 볼거리다. 전통의 남도음식 경연대회가 전시부, 청년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1만원 이내의 1인분 단품요리 경연대회와 담양의 특산물인 죽순을 활용한 요리 경연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안기권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해 축제는 관광객이 주인공이 돼 직접 보고, 만들고, 맛보고, 즐기는 오감만족 축제가 될 것"이라며 "올해까지 담양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개최되고 2017년부터 강진으로 장소가 옮겨지는 만큼 올해 축제가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꼼꼼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본격 가동

빛가람혁신도시 … 중기 등 지원

전남도는 1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실감미디어산업은 현실 세계를 근접하게 재현하는 제품·기술을 개발하는 차세대 미디어산업을 말한다.

개소식에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혁신도시 입주기관장,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실감미디어 획득·제작, 품질평가 및 재현에 필요한 연구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전남의 실감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전남도는 실감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2년 9월부터 실감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센터는 UHD/360도 특수 촬영 장비, 스티치프로세서 등 실감미디어 장비 140여 점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사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감미디어 최신 기술 교육 제공, 스키점프처럼 일반인도 체험 가능한 시설 운영 등 실감미디어 기술이 현실화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티치프로세서는 복수의 카메라 촬영 영상을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으로 변환하는 장비다.

최재유 차관은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는 실감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고 이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단 출범

나주 한전 본사서 … 빛가람 에너지밸리 탄력 기대

지역 SW(소프트웨어)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이 19일 공식출범했다. SW융합클러스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산업(K-ICT·Korea-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전략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손금주 국회의원,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비롯 지역 ICT(정보통신기술)와 SW,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성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상생협력 일환으로 공동 응모했으며, 사업단은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과 SW산업 간 융합을 통한 초광역권의 SW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SW융합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R&BD), 기업 성장 지원, 인력 양성,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의 에너지신산업 추진과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 행사

24일부터 5일간 창업주간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5일간을 창업주간으로 정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일원에서 '2016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술창업주간 선포는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에게는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시를 비롯한 특허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그동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 24개 기관이 개별 추진해왔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24일 기술창업주간 선포식과 함께 지역 대학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청년 창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광주연합기술지주 출범식이 열린다.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는 친환경자동차부품 및 의료소재부품 분야 우수기술 설명과 기술이전 상담을 위한 광주 창조기술 이전 로드쇼가 열릴 예정이다.

25일에는 삼성전자 특허기술 무상 나눔을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의 우수기술 발표 등도 예정돼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형일 : 2017. 1. 12(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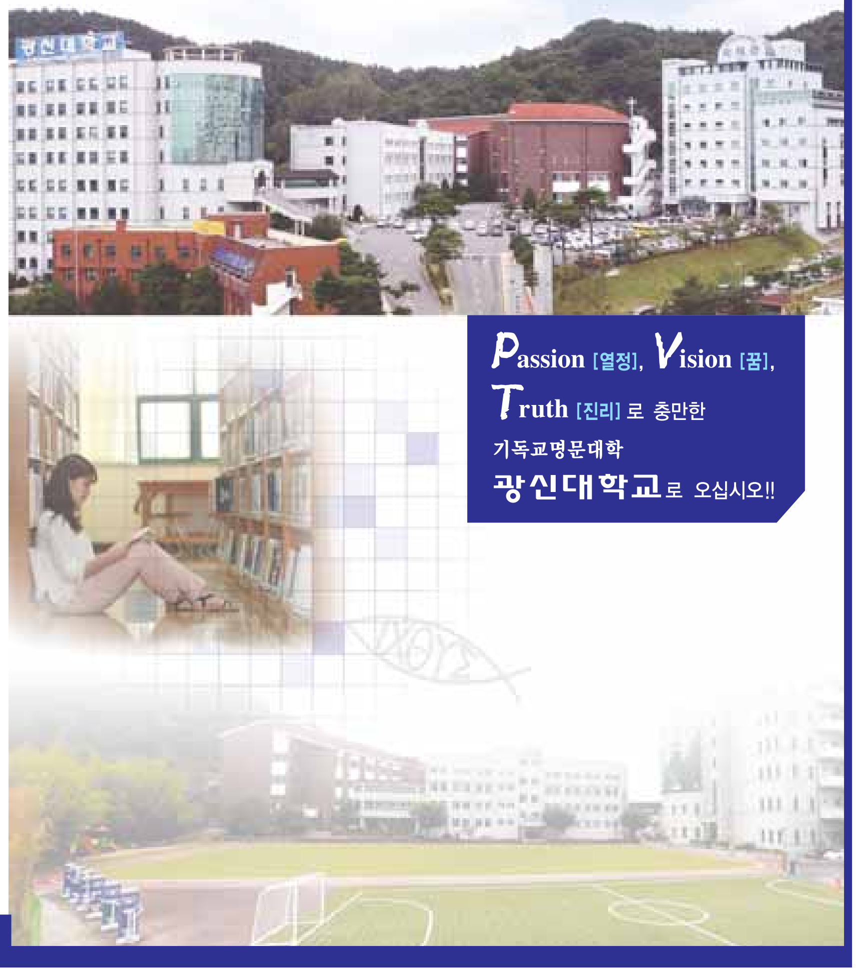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11. 1(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목회학과(D.Min.)	2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